

# 숲 정 이

“하느님의 일꾼인 그대는 정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십시오” (1 디모 6, 11).

연중 제26주일

제 1 독서 : 야모 6, 1a, 4-7

제 2 독서 : 1 디모 6, 11-16

복 음 : 루가 16, 19-31

## 강론

### “크리스찬의 재물관”

경규봉 신부 / 도동동 천주교회

오늘 복음을 통해 우리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동시에 보게 되는데, 가진 자인 부자는 날마다 호의호식 하면서 즐거운 생활을 했고, 가지지 못한 자인 라자로는 온갖 고통을 겪으며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부스러기로 겨우 연명하였다. 그러다가 둘 다 죽었는데 죽은 뒤에 라자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된 반면에, 부자는 죽음의 세계에서 고통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복음은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고 거지 라자로는 죽어서 천국에 간 이유를 다만 “부자는 세상에서 온갖 복을 누렸지만 라자로는 온갖 불행을 다 겪었다.”라고 들려준다. 그렇다면 부자는 남을 돕기에 충분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인색하여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무관심했기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었으며, 라자로는 세상에서 온갖 고통을 겪었고, 그 고통은 세상의 죄를 대신 기워잡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의 고통에 대한 보상을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하느님께서 지상에서의 불의와 불공평을 내세에서 공정하게 갚아주시는 것이다.

부자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라자로를 알 아볼 수 있었다는 것은 곧 그가 살아 있을 때 자기 집 대문 앞에 주검처럼 쓰러져 있는 라자로를 보았으며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는 라자르가 비참한 처지에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거들떠보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과부와 고아와 떠돌이에게 잘해주어라.’는 규정(신명 24, 17)을 어긴 것이다.

도와줄 능력이 있고 도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는 것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한 것은 큰 차이가 있다. 교회에서는 애금시사(愛矜施捨)의 원칙에 대하여 극단의 필요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나에게 꼭 필요한 소유물로서라도 도와주어야 하고, 중대한 필요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소유한 여분의 것으로 도와주어야 하며, 일반적 필요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부자만이 도와줄 의무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복음 안에 나오는 부자의 모습이 나 자신의 모습은 혹시 아닌가?’ ‘과연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애금시사의 원칙을 충실히 지키며 살고 있는가?’ 하고 반성해보자.

## 소리

### “무소속 대통령”

충남 연기군 관권 부정선거사건이 대통령의 당적 포기를 끌어냈고 이를 계기로 공명선거의 큰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 잘못일까. “남은 의혹의 해결은 정치권의 일”이라는 말을 남긴 채 막을 내린 연기군 부정선거 사건은 죄를 신고한 사람이 먼저 구속되고 고발당한 사람은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검찰에 출두, 국민들 앞에 방자함을 서슴치 않았다. 고발자의 인격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지 않지만 수사결과가 관권 부정선거에 대한 흑막을 들추기는 커녕 ‘덮어주기수사’가 이런 것이라는 선례를 남겨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국민들의 검찰과 정부·여당에 대한 불신은 시간이 흐를수록 높아졌고 대선을 3개월 가량 앞둔 김영삼 민자당 총재가 위기를 의식, 개각을 들고 나왔으며 노 대통령은 한술 더 떠 당적 포기 즉 무소속 대통령이 되겠음을 선언한 것이다.

“민자당을 떠나고 선거관리 중립내각을 구성하겠다.”는 대통령의 선언은 김영삼 씨와의 불편한 관계, 특히 대통령의 권한사항인 개각까지 단적으로 언급한데서 비롯됐지만 단체장 선거와 연기사건으로 형클어진 정국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살을 깎는 아픔일런지 모른다.

금메달 12개로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종합 7위를 자랑한 한국은 사회복지부문에선 사회주의국가를 뺀 세계 1백29 개국서 70위라는 부끄러운 사실을 정치인들이 알고나 있는지. 연기 채수사로 국민들의 의혹을 풀고 당리당락을 배제 국민 모두가 잘 사는 국가건설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면 좋겠다. 문

### 숲정이 산책



## “회문산 먹구니에 핀 동정부부” - 성 김대건의 근족 김도마와 강막달레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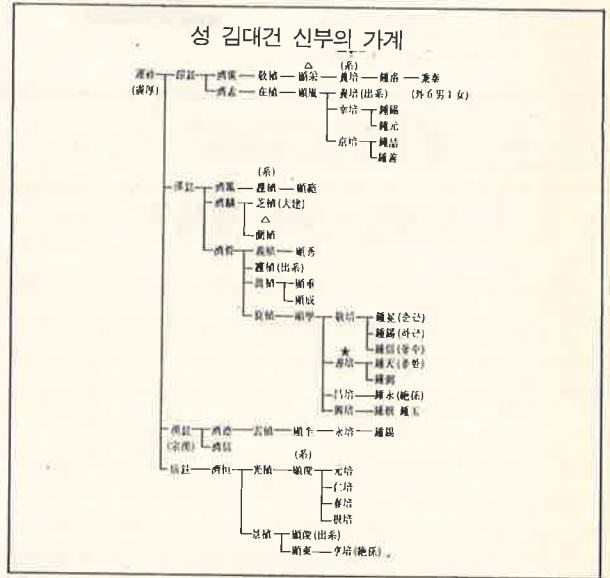
〈지난호에서 계속〉

윤중석은 김대건 신부의 숙부로 알려진 김도마의 수양자(收養子)인 김재화(파비아노)의 사위이다. 김재화가 김도마의 수양자가 된 사연은 이렇다. 어느 날이었다. 깊은 산골 먹구니에 거저 소년이 굴러 들어왔다. 그가 김재화였다. 김도마는 이 소년을 길러 수양자로 삼았다.

윤중석이 알고 있는 이야기는 이런 것이었다. 김도마는 김 신부의 숙부이고, 김난식보다 연상이며, 혼배는 했지만 별거수정(別居守淨)하였고, 엄나무 방석에 앉아 기구했고, 양봉을 업(業)으로 삼았는데 김도마는 70통, 김난식은 50통을 쳤다. 김도마는 매년 밀초를 만들어 성당을 찾아가 봉헌하는 것을 낙(樂)으로 삼았다. 소생(所生)은 없었다. 60여세의 사후에 염을 하려고 보니 허리에 맨 노끈이 살을 파고들어 있었다. 김도마의 처는 강막달레나이며, 수류본당 밑에서 도마보다 더 오래 살았다. 그리고 김난식은 모범신자로서 47세를 일기로 별세할 때까지 동정으로 먹구니에 살며, 신부님 이별가를 지어 후세에 남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대건 신부 가문의 족보를 보면 윤중석의 말이나 다른 입전들의 내용을 수궁할 수 없다. 족보의 기록에는 김난식은 1827년생이며, 안동 김 씨와 결혼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의 숙부 중에는 그의 나이와 가까운 사람도, 그렇게 늦도록 산 사람도 없다. 그런데 김대건 신부의 근족(近族) 중에서 재당질인 김현채(金顯采)가 1825년생이었다. 그는 김대건 신부의 숙부가 아닌 재당질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혼란을 정리해준 사람은 필자가 1985년 겨울, 상판 본당에서 만난 김금순(안나)이었다. 그녀는 김재화의 딸이며, 1916년 수류에서 태어났고, 윤중석은 그녀의 형부이다. 그녀는 부안 등룡리 공소와 본당을 세운 김양배(金養培·요한) 회장이 자기의 큰아버지라는 것이다. 그녀의 아버지 재화는 생전에 등룡리를 자주 왕래했고, 김양배의 아들은 김공일(金公日·譜名 鍾洛)이라고 했다. 그녀의 증언은 족보와 정확했다. 김양배는 김현채의 계자(系子)이다. 그는 종손(宗孫)이었으나 후사(後嗣)가 없어서 당질인 양배로 하여금 증가의 대를 잇게 한 것이다. 등룡리 김양배 회장의 후손들도 김재화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재화가 사망한 이후 두 집안의 왕래가 끊겼



다고 했다.

계촌내(計寸內)의 사람들까지 남남처럼 지내는 예는 구교우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이런 현상이 결국 김현채의 역사에 혼란을 주는 결과가 되었다. 김재화는 피와 씨가 달랐기 때문에 족보에 오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금순이 말한 김현채의 고행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김현채는 결혼 초야(初夜)에 아내 강 씨에게 자기의 결심을 말했다. 그는 방 가운데 물을 한 그릇 떠놓고서 나는 치명하신 김 신부님의 뒤를 따라 평생 동정을 지키기로 천주께 허원했으니 이 물그릇이 엮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했다. 그리고는 영영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801년, 최해두(崔海斗)가 유배지에서 쓴 참회록인 「자책(自責)」에는 “도끼날에 죽는 죽음은 순간의 치명이지만 은수(隱修) 고수자(苦修者)의 덕 닦음은 일생의 치명이라” 했다. 이러한 치명의 두 뜻이 이 고창에서는 유요함과 이루갈다, 그리고 김도마와 강막달레나를 통해서 실현된 것이다.

그래서 1987년, 전주교구는 자치교구 설정 50주년을 지내면서 먹구니에 묻힌 김방지거와 동정부부 증거자 김도마의 묘를 치명자산으로 천묘(遷墓)키로 계획한 바 있었다. 참으로 혜안(慧眼)이었다. 그런데...

### 노송신협(직영) 슈퍼

- 좋은 상품을 보다 싸게
  - 생활필수품 일체 취급
  - 배달 가능(단체 구입 할인)
  - 조합원께 구입액 3%를 출자금에
- ☎ 85-5270 FAX 231-2821

### 명승카인테리어·세차장

자동차 부품 일절  
자동차 상담 전문  
송 주 원(리우렌시오)  
전북은행 본점 옆  
☎ (0652)75-2270~1  
호출기 012-684-0107

### 성락프라자 1층 141호 스와니 혼수용품 코너

침구류·침대카바·  
각종 혼수용품  
조 강 화(울리아나)  
☎ 71-1407

### 박정열 치과의원

원장 박 정 열  
김선자(베로니카)  
경원동 동문 사거리  
(민자당사 옆)  
☎ 231-4200

5분교리 20

“마리아에 대한 개신교의 생각”

개신교 형제들과 대화를 하게 될 때 아마도 거의 항상 제 1라운드 주제는 마리아에 관한 도전이 아닌가 한다. 어느 날 성바로 서원에 전도사라고 하는 이가 들어와서는 격분한 어조로 “어째서 가톨릭은 마리아를 우상숭배하느냐?”고 하면서 맹렬한 설교를 하다가 나갔다. 이쪽의 설명도 듣지 않으려는 일방적 자세였으므로 대화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럴 때 대꾸하면 그야말로 구경거리 싸움만 되므로 같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에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마리아에 대한 올바른 교리를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 개신교의 시조 루터가 가톨릭과 결별한 이후에 쓴 ‘마리아의 찬가’라는 논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뛰어난 마리아 신심은 우리를 놀라게 한다. 루터는 칼빈과는 반대로 마리아 공경을 아주 긍정적으로 고백하였으며 마리아의 원죄없는 잉태 교리를 주장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루터는 “오직 성서로만, 은총으로만, 신앙으로만”을 강조하면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로 수렴하였다. 그리스도가 서야 할 자리에 마리아가 대신 서 있는 것 같은 가톨릭의 과장된 마리아 신심은 종교개혁자들을 더욱 흥분케 하였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가치없다는 격렬한 신학이 반향을 크게 불러일으켰다. 개신교 형제들도 오해를 하고 있지만 우리 가톨릭의 과장된 마리아 신심이 사실 문제다. 마리아 동상 앞에서는 성호를 긋고 큰절을 하기보다 목례로 잠깐 멈추어 다정한 인사 나누는 자세가 좋다. 성전 안에서 제대와 감실 앞에서만 큰절을 하는 것이 가톨릭 예절이다. 이태리에 가보면 성당 안에 성인 동상들이 많이 서 있다. 성요셉계 신심이 두터운 이가 어느 날 요셉상이 치워진 것을 보고 어린 예수 성상 앞에 가서 “애야, 너의 아버지 어디 가셨니?” 했다고 한다. 우리 신앙이 이렇게 거꾸로 되어서는 안되겠다.

\* 참고 자료 : 마리아(책)

교 구 소 식

※ 이병호 주교님 영명 축일 : 9월28일(월) 미사-오전10시,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축! 견진 : 10월3일(토) 오후3시 숲정이 성당, 4일 오전10시 신동 성당.
2. 축! 해성중·고 낙성식 : 10월5일(월) 오후3시 신축 교정.
3. 교구 사제단 운동회 : 9월28일(월) 오후2시 윤호관.
4. 가톨릭 문우회 모임 : 10월4일 오후3시 교구청 별관 1층 소강당.
5. 마산·전주 레지아 우정의 날 행사 : 9월26일-27일 천호 피정의 집, 대상-꾸리아 이상의 평의회 간부, 회비-34,000원.
6. 성모의 기사회 피정 : 10월3일(토) 9시30분-16시30분 효자동 성당.
7. 오기순 신부님 새주소 : 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1043-11.

※ 축! 영명 : 27일(성빈첸시오) 이병호 주교님, 김진철 신부님.

29일(성미카엘·가브리엘·라파엘) 안용기, 김종길, 박종상, 범영배, 박찬길, 경규봉, 이사정 신부님.

● 성소모임 성바로떨수도회 : 10월4일 오후2시 성바로 서원 2층 (0652)252-3398.

살레시오수녀회 : 10월4일 오후2시 연지동 성당 수녀원 (0681)33-2578.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폐품 처리


요즘 몇 개 본당에서 폐품 수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공병 및 폐품들을 모아 보내줍니다. 아울러 알미늄을 비롯한 비닐, 플라스틱 제품들도 태우지 말고 모았다가 한꺼번에 처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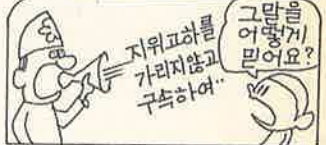
안경 콘택트렌즈·금은시계  
**전주 오거리 천보당**  
 손한성(바오로)  
 정정남(가타리나)  
 고사동 오거리 ☎ 84-4138,  
 253-0707

**엑스포 커튼**  
 브라인드·커튼  
 김정기(플로리아니오)  
 소미자(디나)  
 영등동 신일아파트 송죽알로에 옆  
 ☎ (0653)858-1298

**대화 야채 효소 전복지사**  
 체질 개선  
 김영희(실비아)  
 관동로 전주백화점 옆  
 ☎ 231-4280~1  
 야간 224-8566

**직원 및 봉사자 모집**  
 • 본 여주 라파엘의 집(중복 장애 맹인시설)에서는 관리 및 보육직 그리고 상주 봉사자(여)를 모집합니다.  
 • 연락처 : (0337)83-6637

요십이 (999) 



원평 성당에서 직접 재배한  
**꿀 배**  
 ① 판매기간 : 8월20일-10월20일  
 ② 규격 : 8kg당 1박스  
 ③ 가격 : 특 20,000원, 대 17,000원  
 중 14,000원, 소 8,000원  
 ④ 주문처 : (0658)43-0880 사제관  
 원평 성당 최용준 신부

**보모 모임**  
 정신 지체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살피는 일에 봉사하실 분을 찾습니다.  
 • 연락처 : (0653)54-3555  
 작은 자매의 집  
 • 주소 : 이리시 월성동 산181-1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  
**성소모임**  
 초대 교회 공동체의 정신으로 수도생활을 하고자 하는 고졸 이상의 미혼 여성.  
 • 일시 : 9월27일 오후2시 (매월 마지막 주일)  
 • 삼랑진 본원 ☎ (0527)52-4241



#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승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랑  
수녀원 82-9662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김 동 주

1. 미사시간변경: 10월1일부터, 저녁미사는 7시(수, 목, 금, 토)
  2. 성시간: 1일, 저녁미사 후.
  3. 사목회 상임위원회: 2일 저녁미사 후.
  4. 병자봉성체: 2일 사무실에 신청.
  5. 초등부 어린이양자치: 3일 전9시30분, 장소-윤호관.
  6. 가정방문: 29일-인후8반, 30일-인후9반, 1일-인후10반, 2일-인후11반, 오후2시부터.
  7. 본당의 날: 4일, 각 반 대항 꽃놀이 및 국수잔치, 많은 참여바람.
  8. 모임: ①반회장-1일(전10시30분) ②울뜨레아-4일(후2시)
  9. "축! 혼배: 4일 신랑-김 현(비오) 신부-정소영, 후12시.
  10. 금주청소: 중노9, 10반, 차주청소-중노11, 12반.
- 지난주 봉헌금: 849,770원 □ 교무금: 1,777,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현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이 상 인

- ※ 10월은 로사리오 성월입니다.**
1. 예비자 교리: 신부님반-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수녀님반-주일 오전9시.
  2. 군인주일 2차헌금: 10월 4일.
  3. 교부금 미납이 없도록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회합: ①자모회(1일 오전9시) ②대인회(4일 공식미사 후) ③사목회(4일 저녁미사 후)
- 차주전례: 오교성, 독서-신태섭씨 부부  
봉헌-정진기씨 가족.
- 지난주 봉헌금: 626,080원 □ 교무금: 1,019,90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 수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한 동 욱

- ※ 10월은 로사리오 성월 및 전교의 달.**
1. 성모회: 공식미사 후, 2. 사목회: 3일(토)저녁미사 후, 3. 꾸리아 및 한방 무료 진료: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교부금 납부의 날: 매월 첫주(다음주) 5. 교리교사를 위한 헌금: 오늘, 6. 군인의 날: 다음주 2차헌금 있음, 7. 수녀원 신축헌금: 금주봉헌-396만원, 총액-2,820만원, 8. 성서읽기: 역대하 21장~36장, 9. 청소년사: 구세주의 모친Pr, 10. 금주전례: 해설-최원규, 독서①강덕용 ②강경자, 봉헌-양계질, 김대권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이미숙, 독서①이옥동 ②최영숙, 봉헌-이준희, 이기봉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302,430원 □ 교무금: 181,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 석 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욱

- ※ 오늘은 연중 제26주일 (다음주일은 군인주일 2차헌금 있음)**
1. 회의: ①반장회-다음주일(10월4일) 공식미사 후(반장님 전원 참석바람) ②꾸리아-다음주일(10월4일) 오후2시 ③자모회-다음주 수요일(10월7일) 오전10시30분 ④사목회-다음주 수요일(10월7일) 저녁미사 후, 알릴: ①첫 영성체-10월3일(토) 어린이미사 중에 있음 ②93년도 예산 및 행사계획을 정확히하여 사무실에 제출 해주시시오(사목회 각 분과위원장님) ③교적정리-타본당으로 진출하신 분은 본인이 오셔서 진출신고 해주시기바라며 우리 본당으로 오신 분은 교적올 전입해 주시기바랍니다(냉담방지) ④교부금-교부금을 잘 납부하시는 분께는 죄송한 말씀이나 지금도 금년도 교부금 신일도 하지 않은 분이 많습니 다. 기쁘게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축! 결속: 신랑-김두섭(토마스) 신부-김미영(마카엘라) 10월3일 12시 성당에서.
- 지난주 봉헌금: 852,750원 □ 교무금: 455,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 정 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 ※ 본당의 날 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1. 수요일: 성서교실에 많이 참석하시어 성서공부 하시기바람.
  2. 오늘 공식미사 후: 울뜨레아, 요셉회, 사랑회 있습니다(모든 회원 참석바람).
  3. 다음주 군인주일 2차헌금 있습니다.  
※ 신영세자를 축하하며 잘 보살피겠습니다.
  4. 첫 영성체부 만들어 주신 제대꽃 봉헌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5. 1인1 예비자 인도에 전신자 모두 참여합니다.
  6. 청소년사: 5구역 3반, 4반.
- 지난주 봉헌금: 644,710원 □ 교무금: 896,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김 병 회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정 삼 권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이 영 태

1. 금주: 진국울뜨레아(저울잡실경기장)  
②초등부주일학교 성지순례(황새바위)  
③교부금 납부주일 ④차량축성식(공식미사 후)
2. 성체강복 및 조배: 10월1일(목) 오전10시.
3. 성가정회: 1일 오전4시, 4. 병자영성체: 2일(금)
5. 교구어린이 어린이양자치(성가, 백일장, 사생대회): 3일(토) 9시 30분부터, 장소: 윤호관.
6. 차주: ①군인의날 2차헌금 ②울뜨레아(공식미사 후) ③재속클라라 영제회(오후1시30분)
7. 감사합니다: ①영세 145명에 수고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차기 예비자교리: 10월11일 개강) ②지하수개발헌금(각100만원씩): 유태안(안나), 안숙자(클라라), 노영자(바실라), 김기숙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FA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이 완 규

- ※ 축! 영명: 이병호(빈첸시오)주교님 영육 건강을 위해 기도.**
1. 다음주일은 군인주일: 2차헌금에 정성을 다 합시다.
  2. 성시간 성체강복: 1일 후7시30분, 로사리오 성월을 뜻있게.
  3. 사목회 상임 위원회: 2일 후8시, 회장단 임원개편 준비.
  4. 유아세례: 3일 후3시, 신청서 사무실에 미리 접수 바람.
  5. 어린이 어린이양 잔치: 3일 전9시30분, 윤호관, 9시집결.
  6. 가정방문: 29일 전9시-2구역3반, 후2시-3구역1반, 1일 전9시-3구역2반, 후2시-3구역3반, 반회장 동행.
  7. 축! 혼배: 3일 후12시30분, 전통성당, 신랑-박노익(안셀모) 신부-천지현, 8. 자선익의날: 30일 어머니미사, 아버지미사.
  9. 장모샘 수녀 세미나후 휴가: 28일~10월9일까지.
  10. 회의: 꾸리아-4일 후2시30분, Pr간부 빠짐없이 참석바람.
- 지난주 봉헌금: 1,084,510원 □ 교무금: 714,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한 병 강

1. 청년회: 오늘 미사 후.
2. 반모임: 29일(화)오전-오성은하APT, 오후-거성그린맨션, 30일(수)오전-남양향실APT, 오후-동신APT.
3. 예비자 교리반 모임: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4. 교적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사오시거나 이사가신 가정.
5. 조종고 소품: 10월3일(토) 부모님들의 협조바랍니다.
6. 금주전례: 이완자, 독서·봉헌-이정숙, 김계영, 차주전례: 정 결, 독서·봉헌-이금숙, 박경주.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 치 삼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서 석 회  
사목회장이 동 설

- ※ 오늘은 연중 제26주일 -모임안내-**
1. 사회복지분과: 오늘 오전9:30
  2. 꾸리아: 30일(오전10시)
  3. 구역봉사자: 10월7일(수) 10시30분.
  4. 성모사회: 10월3일(토) 10시30분.
  5. 안나요셉회: 10월4일(일) 공식미사 후.
- ※ 10월4일(일)오후8시-파티마성가대 "성가발표회"가 성당에서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니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1,265,740원 □ 교무금: 2,138,000원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엄 익 도

1. 성지순례: 오늘 오전6시30분 출발, 장소: 해미성지.
  2. 가정방문: 30(수) 오후2시-한신3반, 2(금) 오후시-한신4반.
  3. 봉성체: 1(목)오후2시,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4. 여성분과회: 2(금) 10시미사 후.
  5. 견진대상자 사무실에 신청바람: 10월25(일) 10시30분. 차주모임-꾸리아, 군인주일(2차헌금 있음) 신축헌금 봉헌액-1,380,000원
- 금주전례: 해설-김낙환, 독서-①나귀준 ②조신욱
- 지난주 봉헌금: 1,249,410원 □ 교무금: 2,782,000원